

스페인어권 중남미 문학과 미국문학의 충돌과 상호작용*

신 정 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서 론

언어는 현실에 얼마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언어가 현실에 대하여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20세기의 상징주의는 상징과 허구의 대폭발을 일으켜 포스트모더니즘을 촉발하고 서구문명의 생명력을 소진시켰다. 1940년대에 즈음하여 영미의 모더니즘 예술은 혼돈의 질서가 되었거나, 새로운 문화를 잉태할 수 없는 불모의 질서가 되어 버렸다. 리얼리즘 예술의 문제가 청교도적 강박관념으로 “현실”(reality)의 영역을 지나치게 좁 설정하고 가치로운 언어의 영역을 기형적으로 제한 하는 것이었다면, 모더니즘 예술의 문제는 “현실”의 영역을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고 상응하는 언어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언어의 기능을 무용하게 만든 것이었다. 현실을 무한히 확장하면서 언어와 현실사이에는 궁극적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모더니즘은 스스로를 상징과 허구의 거대한 미로에 가두고 진리를 공동화시켜 놓았다. 그 결과, John Barth가 *The Literature Exhaustion*에서 직설적으로 밝혔듯이, 20세기 후반 서구에서 의미화의 언어적 양식은 상당히 위협할 정도로 소진되고 말았다.

20세기 초의 상징과 허구의 대폭발은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있었던 현실공간의 확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Nietzsche의 디오니수스적 인간성의 재발견

* 이 연구는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제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완성한 것임.

Freud의 무의식의 탐색, Bergson의 심리시간의 발견 등으로 인간의 의식이 초월적 세계와 무의식적 세계 양차원 모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혀졌을 때, 기존의 언어로는 새로이 생겨난 엄청난 현실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James Joyce가 *Finnegan's Wake*에서 불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꿈의 공간을 현실의 공간으로 편입시켰을 때, Samuel Beckett이 *Waiting for Godot*에서 존재의 바탕은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절과 고독이며 부조리가 곧 현실의 조건임을 밝혔을 때, 그리고 Nabokov가 *Pale Fire*에서 “광인”(狂人)의 상상력도 똑같이 정당한 것임을 내세웠을 때, 현실은 이미 단선적 의사소통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으며 언어적 통제의 범위도 벗어나 있었다. Thomas Pynchon이 단편 “Entropy”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했듯이, 20세기 중반 미국의 많은 작가들에게 모더니즘 후기의 문명은 엔트로피가 증가한 “불모”와 “불임”의 질서였으며, 그들의 문제는 상징의 홍수로 만들어진 의미의 미로 속에 윤패된 서구의 정신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었다.

20세기 후반 미국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역사의 혼돈과 언어적 형식의 소진에서 비롯된 미로 속의 윤패에 대한 공포이다. 미국의 현대 문명에서 불모와 소진의 질서를 목격한 Pynchon이나 Barth와 같은 미국의 현대 작가들은 모더니즘 후기 문명의 중심이탈을 되돌릴 체제전복적 상상력을 필요로 했고 그 얼마만큼을 남미의 Borges와 그의 후계자들의 판타지 미학에서 찾았다. John Barth가 *The Literature of Exhaustion*의 곳곳에서 자신의 활동에 끼친 Borges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The Gravity's Rainbow*에 Thomas Pynchon이 소설 속의 인물들로 하여금 Borges에 대해 몇 번이고 되풀이해 언급하도록 했다는 것은 영향의 성격이 어떤 것이던 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남미 판타지 소설의 원류를 Edgar Allen Poe에서 찾는다면 (Roo 6), Garcia Marquez가 Faulkner를 자신의 스승이라고 부른 것으로 (Frisch 1) 아 중남미 작가들과 미국 작가들의 영향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상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시대 미국 작가들에게 끼친 중남미 스페인어권 작가들의 영향은 피상적 차원을 넘어 직접적이면서도 소설미학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 만큼의 가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도와 방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향의 강박관념에 의한 뒤틀림에도 불구하고, Barth와 Pynchon 등의 미국 현대 작가들의 문학이 중남미 팬터지 미학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남미 스페인어권 작가들의 팬터지 미학이 Barth나 Pynchon과 같은 미국의 현대 소설가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그 요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중남미 스페인어권 작가들이 개발한 팬터지 미학에 관한 훌륭한 연구는 Lois P. Zamora가 편집한 *Magical Realism: Theory, History, Community*(1995)와 Elsa Linguanti 집한 *Coterminous Worlds: Magical Realism and Contemporary Post-colonial Literature in English* (1999)에서 찾을 수 있다. 두 권의 책 중 Lois의 책은 류를 찾아 역사적으로 마술적 사실주의를 정의함으로써, 그리고 Elsa의 책은 후기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조망함으로써 중남미 팬터지 미학의 생성과정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특히 Elsa의 *Coterminous Worlds*는 제목 자체가 중남미 작가들의 작품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중남미 스페인어권 문학이 미국문학에 끼친 영향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Lois의 책에 실린 논문들의 논조를 아주 간단히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경계를 같이 하는 여러 세계에서 힘은 삼투압을 따라 흐른다. 그러므로 힘이 강한 하나의 세계와 힘이 약한 다른 세계와의 역학관계는 “후기식민주의적”(postcolonial)이며 이를 표현한 중남미 작가들의 팬터지 미학은 “마술적 사실주의”(magical realism)이다.

“마술적 사실주의”라 불리는 현대 중남미 스페인어권 작가들의 팬터지 미학은, 비록 그것이 Cervantes에서 Kafka에 이르는 서구의 팬터지 미학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서구와의 역학관계에서 “후기식민 상태”에 놓인 중남미의 역사적 상황에서 생겨났다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후기식민 상태”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팬터지미학이 지배문화를 형성하고 있던 미국의 현대문학에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떤 강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중남미 스페인어권 문학의 미국 현대문학에 끼친 영향을 깊이 천착하는 연구는 극히 미미하

다. 스페인어권 작가들이 미국 현대 작가들에게 끼친 영향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아주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서 “Barth나 Pynchon이 Borges의 아방가디즘(Avanguardism)에 영향을 받았다”는 식의 백과사전적 언급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미국의 우수 도서관들의 주제 목록에 이 주제가 등록된 곳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이 방면 연구의 흐름을 극명하게 짚어 준다.

포스트모던의 지배문화를 누러온 미국의 현대 문학을 후기식민 상태에 처한 중남미의 현대문학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후기식민주의” 이념과 팬터지 미학의 함수관계는 무엇이며, 중남미 스페인어권 문명의 “마술적 사실주의”가 어떤 연유로 미국의 현대작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만약 미국의 현대문명이 포스트모던의 부조리신의 영지에서 후기 식민상태에 빠져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들의 영향관계가 논리적 일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Borges와 Marquez의 몇몇 중단편을 분석하며 중남미의 역사적 상황과 팬터지 미학의 함수관계를 밝히고, 그 바탕 위에서 Barth와 Pynchon의 몇몇 중단편을 분석하면서 중남미 스페인어권 문학이 미국문학에 끼친 영향의 성격을 논할 것이다. 예가 되는 작품의 수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향의 성격에 관한 규명도 자연히 지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겠지만, 이 논의가 이 시대 두 문학의 대표급 작가들에 관한 논의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보르헤스와 마르케스의 팬터지 미학

모더니즘 이후 문명과 미학의 중심에는 분명 이성중심주의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노력이 자리잡고 있다. 어느 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모더니즘이란 삶과 존재의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영역을 합리와 이성을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며, 그로 인한 이성적 질서의 폭발과 기형화이기 때문이다. Michel Buto의 알파벳형 소설구조나 Nabokov의 시와 비평의 병치구조, 그리고 Beckett이

나 Albee를 비롯한 많은 현대 작가들의 무논리 구조는 현실의 다층성, 복잡성, 무논리성을 중시하는 현대 서구 미학의 흐름을 반영한다. 서구 미학에서 “현실”(reality)은 이제 더 이상 합리의 질서나 기계적 시간의 구조 속에 들어 있지 않으며, 현실 그 자체는 여러 층위의 조합이거나, 이합집산의 사건 뭉치들, 또는 꿈과 환상과 현실의 복합체로 인식된다.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와서 “인간의 경험은 시작과 끝을 가지며 논리적 필연성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는 옛날의 심미적 질서개념이 무자비하게 무너지고 만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위엄은 포스트모던의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작품 어디에서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저급한 상상력으로 여겨져 오던 팬터지가 삶의 영역을 비이성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주는 문학적 기제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성중심주의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중남미 작가들의 팬터지 문학은 유럽과 미국의 아방가디즘(Avantgardism) 문학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삶이 정연한 명제의 논리적 논증과정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각주”(footnote)가 필요한 우발사건들의 뭉치이고 현실은 실현된 욕망 미실현 욕망의 병렬적 복합체라는 생각은 Borges나 Marquez와 같은 중남미 스페인어권 작가들의 “마술적 사실주의” 작품 속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Scott Simpkins가 그의 논문 “Sources of Magic Realism/Supplements to Realism in Contemporary Latin American Literature”에서 밝힌대로, 중남미 마술적 사실주의의 팬터지 미학의 바탕은 Cervantes에서 발원하는 팬터지 소설의 전통 속에 있는 것이다 (Simpkins 146). Franz Roh는 1968년에 나온 그의 책 *German Art in the Twentieth Century*에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표현대상의 아름다움 재발견해 내는 예술상의 한 반동적 흐름” (a “countermovement in art through which the charm of the object was rediscovered.”)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70), 팬터지와 사실의 병치를 중심미학으로 하는 중남미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Roh가 정의한 마술적 사실주의의 개념에 배치되지 않는다.

언어와 현실의 대치상황에서 팬터지를 사용하여 언어의 표현역을 넓히려 했다는 점에서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부정할 수 없이 유럽

팬터지미학의 후예이다. Cervantes에서 Kafka에 이르는 팬터지 전통의 중심에 현실은 사실적 언어 그 자체만으로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크며 팬터지는 사실적 언어의 표현한계를 넓히는 중요한 언어적 기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 마술적 사실주의는 비극적 역사인식에서 유럽의 아방가르디즘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마술적 사실주의 작가들은 중남미의 역사에서 정복자로서의 삶과 피정복자로서의 삶이 비극적으로 혼재하는 것을 보았고 팬터지 언어의 표현력 확장 기능 뿐 아니라 팬터지의 역사미로화 기능도 동시에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공상과 환상과 환각에 비추어 설명될 수 밖에 없는 슬픈 자화상을 찾았고, 그들의 작품에서 현실창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상과 환상과 환각의 삶을 “마술적”으로 표현했다. 중남미 스페인어권 작가들의 “마술적 사실주의” 문학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정복자가 되었지만 유토피아의 환각에 갇혀 신식민상태에 빠져든 중남미인들의 슬픈 사랑과 소망과 일상의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를 낳은 팬터지를 병치하여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게 함으로써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한다. 그들의 문학은 정복을 통한 환각에 사로잡혀 정복자가 되었지만 팬터지에 갇혀 피식민 상태로 몰락한 그들의 슬픈 역사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Britannica Online의 “Magic Realism” 항의 저자는 중남미 스페인어 문학의 “마술적 사실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로 중남미의 서술기법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적인 이야기 속에 비현실적 이거나 신화적인 삶의 요소들을 변형시키지 않고 끼워 넣는 기법을 말한다. 비록 이 기법이 여러 시대에 걸친 여러 문화의 문학에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중남미 여러나라 문학에 나타나는 기법상의 이러한 특징을 처음 발견한 Cuba의 소설가 Alejo Carpentier가 194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며,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용어이다. 어떤 학자들은 중남미의 식민시대 후기 문학은 정복자로서의 현실과 피정복자로서의 현실이라는 적어도 두 가지 현실에 동시에 의미를 부여해야 했던 문학이며, 마술적 사실주의는 식민시대 후기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저작활동이라고 단정한다 (Britannica Online).

Roberto Gonzalez Echevarria가 주장한 것처럼, 중남미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유럽의 마술적 사실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었다 (Echevarria 116). Borges나 Marquez의 작품 한 가운데에는 늘 표현대상인 현실과 표현수단인 언어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고, 팬터지는 그들의 예술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중남미의 슬픈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서술의 한 방식이며, 그러므로 서사시 서술의 새로운 한 방식이다. Luis Leal이 지적한 대로, 중남미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유럽의 마술적 사실주의처럼 순전한 공상문학이거나 초현실주의 문학이 아니다 (Leal 121). 초현실적 심리소설과는 달리 중남미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꿈의 모티프 찾기에 몰두하지 않으며, 공상소설이나 공상과학 소설과도 달리 가상의 세계에 몰입하여 현실을 왜곡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팬터지 전통의 먼 변방에서 현실의 일부로 생활화되어 있는 수 많은 팬터지들을 역사적 사실과 병치시킴으로써 일반적 서사시보다 더 큰 서사적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것은 심리영역에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꿈의 세계나 현실의 창조에 기여하지 못하는 공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의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실을 비극으로 만드는 팬터지를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신식민주의의 저주받은 역사 속에서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현대 작가들은 팬터지의 예술적 가능성과 팬터지에 내포된 비극성을 동시에 보았다. 97년 12월호 *The Unesco Courier*에 실린 “이 달의 인터뷰”에서 Jasmina Sopova는 그들의 상상력을 불질러 “마술적 사실주의”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Elle Lescot의 무시무시한 독재에 맞서 싸웠던 젊은이들에게 초현실주의는 저항의 힘을 주는 활력소였습니다. 초현실주의는 단순히 하나의 미학적 신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후진국의 징후로 생각해 남몰래 부끄러워했던 이 경이로움의 감각이 따지고 보면 우리들을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임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초현실주의는 일상 속에 초자연을 끼워넣는 방법이지요. 초자연은

어디에고 있습니다. ... 이 마술은 하이티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독재자들은 마술의 왜곡을 자행해 왔고,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뒤집어 엮었지요. Marx의 유토피아는 거짓말 투성이었고 억압된 욕망에서 오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 내가 마침내 깨달게 된 것은 하이티의 공포정권이 왜곡된 마술의 한 형태이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도 다른 쪽에서 왜곡된 마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 천부의 인권이라는 것을 볼모로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의 꿈과 이상의 납치했지요 (Sopova 2).

힘에 의해 뒤튼어진 “마술”이 중남미 역사의 문제라는 Jasmina Sopova의 생각은 범 중남미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20세기 중남미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지배문화를 창조할 능력이 없는 정착민들의 뒤튼린 팬터지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그것을 비추어 드러내 보이는 거울이다. 이 시대 중남미의 마술적 사실주의자들은 힘에 의해 뒤튼리지 않은 “마술”을 걸어 “후기 식민상태”에 놓인 그들의 역사를 문학 속에 재현하려 했던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공상하고, 상상하고, 꿈꾸며 현실을 재창조한다. 그러나, 세계는 언제나 인간과 완전히 동화되기를 거부한 채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껴서 있다. 힘에 의해 팬터지의 “마술”이 뒤튼리면 뒤튼릴 수록 팬터지의 현실 창조력은 떨어지고 역사는 뒤튼린 팬터지의 미로에 갇히며, 세계를 구축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좌절된다. 서구 문학사에서 중남미 마술적 사실주의자들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힘에 의해 뒤튼린 팬터지로 생겨난 미로화된 역사의 발견이다. 그들의 문학에서 뒤튼린 팬터지로 역사가 걸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든다는 역사의 미로의식은 곧 끝없는 이방감과 고독감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혼돈화된 세계 속의 이방감과 고독감은 미로에의 공포를 낳는다.

Octavio Paz는 그의 *Labyrinth of Solitude*에서 뒤튼린 팬터지의 중남미 문가 그들을 “고독”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고독”은 그들 문학의 숙명적 주제라고 갈파한 적이 있다 (254-5). 이 책의 “고독의 변증법” (“The Dialectic Solitude”) 장에서 Paz는 “고독”을 이렇게 정의한다. “고독은 [신의] 깊은 뜻 담긴 인간의 조건이다. 인간만이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고 오직 그만이 [외로움을 덜기 위해] 타자를 찾아 나선다. ... 인간이란 그리움의 덩어리이며 영

교(靈交)를 원하는 존재이다.” Paz에 의하면 중남미 정착자들은 “세계의 중심으로부터 추방당했고 정글과 사막과 지하의 미로에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 헤메도록 운명지워졌다. 그리고 그 미로는 가위가 출몰하는 곳으로서 그곳에서는 이성(理性)이라는 거울이 사방에 달려있는 가위방이 끝없이 이어진다.” Paz에게 “고독”이란 이성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뒤틀린 팬터지의 가위방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으로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향수어린 동경”이다 (259).

중남미 마술적 사실주의 작가들에게 힘으로 뒤틀린 팬터지는 결합있는 상상력으로서 역사의 미로를 만드는 삶의 기제이며 이방감과 고독감의 근원이다. 역사가 이성의 허울 속에서 팬터지의 미로 속에 던져질때, 이방감과 고독감과 유토피아적 “뿌리”에 대한 향수는 필연이다.

Borges와 Marquez는 그들의 문학에서 Paz의 생각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작품 속에 어떤 상상력으로도 유토피아적 “뿌리”로 되돌아 가는 길을 찾을 수는 없으며 그러므로 고독으로부터의 인간의 구원은 없다는 절망감을 담았다. 그들에게 “고독”은 적어도 자신들의 운명이며 그들에게 내린 신의 저주이다. 나아가 그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이며 인간에게 신이 내린 저주이다. 그들의 미로의식은, 그러므로, 20세기 후반 신식민 상태에서 역사의 미로에 갇힌 사람들의 고립으로부터의 구원의 탐색이며, 보다 넓은 차원에서는 인간의 존재조건에 대한 무한한 불안과 공포의 표현이다.

Borges는 “The Garden of Forking Paths”와 “The Library of Babel”에 Marquez는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에서 고독의 역사를 낳은 결합있는 상상력으로서의 팬터지를 그들 문학의 주제로 삼는다. 그들은 미로화된 역사에서 느끼는 사무치는 “고독감”(sense of solitude)을 Paz와 공유하면서, 영시간으로도 지울 수 없고, 어떤 상상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향수를 “마술”—즉, 뒤틀림없는 팬터지--의 형식으로 구현한다. 그들의 문학은 현재에 대한 연민과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공포로 가득차 있다.

Borges의 단편 “The Garden of Forking Paths”와 “The Library of Babel”은 성의 허울을 쓴 팬터지의 미로가 어떻게 생겨나며, 인간은 그 미로 속에서

얼마나 고독한가를 보여 주는 원형적 작품들이다. Cervantes의 팬타지 소설 전통에서는 환각의 상상력을 지닌 “부랑인”(picaro) 주인공의 팬타지는 체제가 요구하는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눈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엿보며 기성사회의 치부와 환부를 들추어 내고 지배세력이 현실에 붙인 합리성과 필연성이라는 딱지가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힘이다. Cervantes의 전통에서 규범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자유를 가진 피카로는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방외인(方外人)으로서 현실세계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현실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현실세계의 윤리와 도덕에 “마술의 거울”을 비추는 인물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orges의 단편에 등장하여 의미의 미로를 헤매는 현대적 부랑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이성적”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지극히 반이성적인 인물들이다. 그들은 현실방어력도 현실창조력도 없는 팬타지로 비극적 현실을 만들며 그 세계 속에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 고독의 나락으로 빠져든다. 사실, Borges와 Marquez의 팬타지에서 초이성적 부랑인들은 Cervantes의 팬타지 소설 전통을 풍자함으로써 부패한 팬타지로 정신적, 경제적 신식민상태에 빠져든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허구적 틀을 만들어 내고 있다.

“The Garden of Forking Paths”는 물론 언어와 시간에 관한 포스트모던의 전형적인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 이 단편은 시간 속에서 무한히 의미가 분화하는 언어의 문제를 탐정소설 이야기 구조 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보유(補遺)편 화자인 독일 첩자 유춘(Yu Tsun)은 군사기밀을 취득하여 고지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기 할아버지—취펜(Ts'ui Pen)--쓴 이야기 속의 미로소설 “The Garden of Forking Paths”의 문제와 마주친다. 독일군 당국에 폭격할 도시의 이름을 알려 줄 방도를 찾던 유춘은 그 도시와 같은 이름의 중국인 학자이자 자신의 친구인 올버트(Albert)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생각을 한다. 유춘이 “The Garden of Forking Paths” 쓴 취펜의 자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 소설로 옮겨간다. 올버트는 “취펜의 소설이 가능한 최대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원적 담화이고 저자가 바라는 의미찾기의 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의미화

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언어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 때 독일의 어느 대학에서 자신도 중국학 강의를 맡았던 유춘은 같은 인물이 여러가지 다른 배역을 맡아서 끝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에 종횡무진 관여한다는 사실을 들어 자기 할아버지의 소설이 “뒤죽박죽의 미완의 원고 뭉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피력한다. 그러곤, 자신의 임무에 따라 올버트를 권총으로 쏘고 살인과 폭격의 기사가 같은 지면 위에 실려 있음을 확인한다.

Scott Simpkins가 지적한 것처럼, 소설 속의 비평가 올버트는 언어가 수행하는 의미화의 임시성을 간과하고 있다 (Simpkins 151). 그러므로 취펜의 소설에 대한 비평가로서의 Borges의 생각은 올버트의 생각과는 다른 쪽에 있을 수 있다. 취펜은 사실주의 텍스트를 뒤집어 엮어 그것이 가진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소설에 대한 손자의 반응으로 미루어 의미화의 가능성을 증대하려는 그의 노력은 실패했으며 그의 마술적 텍스트는 의미의 중심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탈중심화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언어는, 따라서 텍스트는 사람들의 습관에 의해 부여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는 수많은 텍스트로 증식되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게 되는 것이다. “The Garden of Forking Paths”는 취펜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를 통한 의미화 작업이란 의미의 중심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무한히 분화된 텍스트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언어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라면, 텍스트는 시간과 상상력에 의해 가치를 치면 칠수록 언어의 불완전함에 따르는 의미의 분화를 그만 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orges의 단편 “The Garden of Forking Paths”가 포스트모던한 소의 단순한 전형은 아니다. 중남미의 역사가 정복의 역사에서 피정복의 역사로 쇠락하는 시점에 쓰여진 이 단편이 역사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언어의 불완전성과 그로 인한 의미의 끝없는 분화라는 지극히 관념적인 주제만을 다

론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 작품은 포스트모던의 인식론적 위기를 반영하는 하나의 작은 소설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이 작품이 중남미 소설로서 의미있는 작품이라면 포스트모던의 인식론적 위기 뿐만 아니라 신식민상태에 빠져든 역사의 정신적 위기를 다룬 작품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작품 속의 취펜의 팬터지는 포스트모던의 예사로운 팬터지가 아닌 중남미의 역사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은유이며 이 소설의 탐정소설 구조는 중남미의 역사에 대한 탐험의 성격을 띤다.

Borges의 “The Garden of Forking Paths”는 포스트모던의 인식론적 위기상을 표현한 소설이라기 보다 보유(補遺)편의 화자인 유춘의 심리상태를 그린 심리소설로 보는 편이 더 많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때에만 이 소설의 짧지만 주가 되는 전쟁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독일군의 폭격은 예정일 보다 몇 일 늦게 행해졌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군 첩자인 유춘이 폭격할 도시의 위치를 늦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긴 보유(補遺)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유춘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독일을 위해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난다. 그는 지금 첩자로서의 자신 임무를 다하고 있지만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심리적 공황상태에 있으며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 힘의 소용돌이에 갇혀 죽음을 앞에 두게 된다. 무엇이 그를 “중국인 교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독일을 위해 “첩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은 아마 자기 할아버지의 유산인 “The Garden of Forking Paths”와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The Garden of Forking Paths”는 영국인 중국연구자 올버트의 관점에서는 현대적 인식론의 위기를 선각하고 문학적으로 담론화한 하나의 짧은 소설이다. 그러나, 같은 중국연구자였지만 현재는 독일군 첩자 노릇을 하는 유춘의 관점에서는 자손을 극한의 위협으로 몰아 넣으며 중국역사의 쇠락을 가져온 “뒤죽박죽의 공상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소설이 유춘의 가계와 그의 민족에 무엇이었는지는 유춘과 올버트간의 다음 대화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24-7).

“놀라운 운명이지, 취펜의 운명이란.” 올버트가 말했다. “천문학과 점성학에 밝고 고전에 능한 지방장관이었지. 바둑, 시, 붓글씨 어느 하나 못하는 게 없었어. 그런 그가 이 모든 걸 다 버렸단 말이야 미궁의 책 한권을 쓰기 위해서...”

“우리 취펜의 후예들은 그 수도승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다네,” 내가 대답했다 “부질없는 책이야. 끊임은 황설수설이지...”

“난 말이야, 그렇게 훌륭한 자네 선조께서 부질없는 일을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그래 13년이란 긴 세월을 말장난이나 하시자고 버리셨겠는가?”

유산으로 남겨진 미로소설 “The Garden of Forking Paths”는 취펜의 자손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그것은 자손들을 뒤틀린 팬터지의 미로에 가두고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역사를 쓰는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다른 민족들의 전쟁에 위험한 임무를 지고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취펜의 유저(遺著)에 의하면, 모든 길은 갈라져 있고, 모든 공간은 열리기 어렵다. 이 팬터지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은 무한히 유연하고 무한한 갈래를 만들며 기형과 변형으로 헤어 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든다. 그렇다면 이 팬터지의 효용은 무엇인가?

“The Garden of Forking Paths”에는 취펜의 자손들이 어떻게 공상의 미로에 갇히게 되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이 단편의 속편으로 읽힐 수 있는 “The Library of Babel”은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어떤 정보가 얼마나 필요할까? 역사상 일어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의 혁명들은 과연 인간을 삶과 욕망의 질곡에서 자유롭게 한 것일까? Borges가 “The Library of Babel”에서 던진 질문들이다. 이 단편은 장서가 무한히 많은 바벨의 도서관이 그 안에서 나서 책장들 사이에서 방황하다 그곳에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가상의 정보를 갖고 있다 (Rollaso 3). 그곳에 있는 텍스트들을 모두 합치면 이제까지 쓰여진 모든 텍스트들과 앞으로 쓰여질 모든 텍스트들, 더 나아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자나 숫자들의 가능한 조합들의 합이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우주의 역사에 대한 신

(神)의 각본같은 무엇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가상의 정보의 늪에 깊숙히 빠져 세상 사람들에게 이젠 더 이상 실제의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책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수 개월에 걸쳐 입을 만한 책 한 권만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삶의 큰 성과가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책이 삶에 어떤 보탬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 우화소설에는 오래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 관한 삽화가 하나 들어 있는데, 이 삽화는 정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바벨의 도서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바벨의 도서관이 온갖 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자, 처음에 사람들이 느낀 것은 지극한 행복감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숨겨진 보물의 주인이 된 양 생각했다. 개인적 문제이던 세계적 문제이던, 어떤 육각방에는 그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있었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갑자기 그 우주가 무한히 넓은 희망의 영역을 점령해 버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변론서에 관해 많은 말을 했다. 우주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근거를 밝히는, 또는 미래에 갈무리된 수많은 비밀의 열쇠가 담긴 예언서나 변론서에 대해서 말이다. 욕심이 사나운 사람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변론서를 찾고 고향을 떠나 다른 육각방으로 내달았다. 이 죽음의 순례자들은 좁은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어두운 저주를 퍼부었으며, 그 그룩한 낭하에서 서로를 목졸라 죽였다. 그러곤, 거짓 책들을 공기 구멍으로 내던지다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다른 이들처럼 죽어갔다. 어떤 이들은 미쳤다. ... 변론서는 존재한다. ... 그러나, 그것 찾아 나선 자들은 자신의 변론서나 그 비슷한 것을 찾을 확률이 영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3).

원시시대의 삶은 필요한 정보의 양보다 존재하는 정보의 양이 훨씬 적은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삶은 필요한 정보의 양보다 존재하는 정보의 양이 훨씬 큰 것이 문제다. 더우기 필요이상의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의도적으로 해로운 것이거나 등으로 결과적으로 “공상적”/“비과학적”이라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과학적”인 정보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다면 삶은 공포와 증오와 고독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막연히 6각 진열실의 무한한 집합체라는

것 뿐 형태나 모양도 정해지지 않은 바벨의 도서관은 간혹 유익한 책들이 섞여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없거나, 때로는 해롭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실이 뒤튼린 정보를 담은 책들의 무질서한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이 도서관 안에서는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이 보편이자 정상이고 합리적이라거나 순수하다거나 자기를 낮춘다거나 하는 일은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쓸모있는 정보를 구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악몽이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불완전하고 비과학적인 생각을 텍스트로 만들어 내게 되었을때, 세상은 급기야 바벨의 도서관이 되고 만 것이다.

“바벨탑”의 아이러니는 신의 경지에 이르려는 인간의 터무니없는 소망에 대한 신의 저주이다. 그 결과 인간은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 버리고 오해와 불신과 소통불능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바벨의 도서관”의 아이러니는 “바벨탑”의 아이러니의 현대판 각색이다. 세상의 물리를 깨쳐 우주를 소유하려는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에 대하여 신은 의미의 미로를 만들어 저주한 것이다. 길이 하나일때 미로는 결코 만들어 지지 않는다. 길을 셀 수 있지만 해도 미로는 없을 것이다. 미로는 길은 너무나 많지만 길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모자랄때 생겨난다. “바벨탑”이건 “바벨의 도서관”이건 신의 저주 아래서 인간은 이제 의미는 물론 의미화의 방식도 잃어 버리게 되었다. 신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여러가지 말을 만들어낼 능력을 주면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느낀 바를 소통할 능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신은 인간에게 세상을 의미화하고 표현할 능력을 주었지만 물리를 득하여 정확하게 텍스트화하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 결국 인간은 의미화의 수단인 언어의 미로 속에 유폐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언어를 통하여 우주의 모든 것을 의미화하려는 인간의 터무니 없는 욕망에 대하여 신은 의미속의 무의미의 저주를 내린 것이다. 뒤튼린 상상력의 “비과학”으로 지어진 미로에 유폐된 인간은 고독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의미가 지극히 단순했던 옛날에 대한 향수와 지극히 복잡해서 아주 작은 의미하나도 찾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어가도록 운명지어진 것은 아닐까? 무한히 많은 6각 진열실로 된 Borges의 도서관—그것은 “비과학적” 상상력의

미로가 만들어낸 감옥의 이미지이며, 그 속에 서린 고독과 향수와 공포의 이미지이다.

“바벨의 도서관”은 얼마간의 진실과 상당한 거짓말과 엄청난 환상과 환각을 기록한 텍스트들로 가득차 있다. 그것은 곧 “The Garden of Forking Path”에서의 취펜의 뜻모를 지껄임같은 것이다. 이 소설에서 팬터지 속의 팬터지들은, Rollason의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 속의 하이퍼 텍스트와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써 (Rollason 3), 끝없이 이어지고 갈라지며 의미의 출을 방해하면서 사람들을 고독과 향수와 공포 속으로 몰아 넣는다. 합리의 허울에 덮힌 환각에의 유펬—그것이 곧 Borges의 미로의식의 요체이자 그의 역사 인식의 한 단면이다. Borges에게 신식민 상태에 빠져든 중남미 스페인어권 여러나라들의 역사는 터무니 없는 환각으로 끝없이 뜻모를 말을 지껄여대는 사람들의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삶의 집합인 것이다.

Garcia Marquez는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하여 호흡이 긴 서사의 형식으로 Borges의 미로의식을 구현한 작가이다. 그는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에서 Faulkner의 신화적 마을 Yoknapatawpa를 Colombia의 작은 강변 고을 Macondo로 옮기고 (Marquez, “The Solitude” 3), 환각으로 팬터지의 역사에 스스로를 유펬한 일군의 인물들을 창조한다. 이 소설에는 가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부류의 팬터지와 한 부류의 현실주의가 교차하면서 Buendia 가문을 몰락으로 이끈다. 팬터지 중 하나는 Buendia 가문의 시조 Hose Arcadio Buendia의 팬터지로서 “fantasy of science”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둘째 아 Aureliano Buendia의 팬터지로서 “fantasy of freedom”이다. 그리고 Buendia 가문을 “100년 동안의 고독” 속에서도 지탱할 수 있게 한 현실주의는 Hose Arcadio Buendia의 아내 Ursula의 것이다. 몽상이 현실이되고 현실이 다시 상을 키우며 삶이 미로 속으로 빠져들때, 현실주의는 얼마간 삶의 명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뿐이다.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에는 환각에의 유펬로 “100년간의 고독”을 온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침잠하는 Columbia 정착민들의 저주의 이야기가 팬터지와 사실주의가 혼재하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팬터지는 등장인물들의 숙명이자 Columbia의 역사에 대한 은유이고, 현실주의는 그들의 환각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소설에서 Columbia 역사 속의 부랑인들은 무한히 상상하지만,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결코 찾지 못한다. 그들의 “과학”과의 만남이나 자유에의 갈구는 무한히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고 무한히 많은 행동을 부추기지만, 그들은 끝내 팬터지의 미로에 갇히고 만다.

그때 마을을 찾아든 집시들은 낯선 사람들이었다. 매끈한 살결과 가냘픈 손가락을 지녔으며 자기네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젊은 집시들의 춤과 노래는 마을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울긋불긋한 빛깔의 앵무새는 이탈리아 아리아를 불렀고, 어떤 암탉은 탬버린 소리에 맞춰 황금알을 백 개나 낳았으며,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원숭이도 있었다. 또한 단추를 달거나 몸의 열을 내리게 하는 등의 여러가지 기능을 지닌 기계, 언짢은 기분을 말끔히 제거해 주는 고약, 그 외에도 많은 신기한 물건들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별도의 발명품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할 지경이었다 (19).

Hose Arcadio Buendia는 집시들이 신기한 물건들을 가지고 Macondo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삼매경에 빠진다. 그들은 현실의 모든 것을 거두고 연금술에 몰두하거나, 집시의 쇠붙이로 땅 속의 금을 찾으려 하거나,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얼음 조각을 손위에 얹고 공포와 환희로 떠난다. 그리고 “날아 다니는 양탄자”를 보고는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에 가슴을 옥죄기도 하고 은판사진으로 신(神)의 모습을 찍으려고도 한다. 그에게는 집시가 마술용으로 들고 다니는 모든 물건들은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처럼 보였으며, 그 위대한 발명품들을 하나 하나 “실험”하고 싶은 넘치는 정열을 주체할 수 없어 마침내 머리가 돈다. Ursula의 명에 따라 그는 죽을때까지 뒷뜰 밤나무에 묶여 굶어 오르는 “과학의 팬터지”를 접고 몸과 영혼의 부자유 속에 일생을 거둔다.

Hose Arcadio Buendia의 둘째 아들 Aureliano Buendia는 다른 종류의 팬터지—“자유주의 팬터지”—를 갖고 산다. 그는 어렵게 맞은 부인이 죽은 후, 장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선거에서 터무니 없는 부정을 목격한다. 그리고 자유

주의와 보수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유주의자가 된다. “만일 나에게 어느 한 쪽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의당 자유파를 택하겠어. 보수파 놈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니까.” 그는 흑백논리에 빠져 자유주의 게릴라가 되고, 얼마간의 저항을 해보지만 곧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오직 하나, 바로 폭력이다.”라는 저항세력의 모토에 동의한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장화를 신고 총을 어깨에 둘러맨 이 반란군이 밤 아홉시까지 자기와 도미노 게임을 하던 사위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우렐리아노, 이건 미친짓이야!”

그가 소리쳤고 아우렐리아노는 대답했다.

“이건 결코 미친것이 아닙니다.” 전쟁이지요. 앞으로는 저를 아우렐리아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100).

부엔디아 대령은 서른 두 차례에 걸쳐 반란을 꾀했으나 모두 실패한다. 보수파와의 물고 물리는 전쟁이 1차적으로 완전히 끝났을때 “옷은 갈기 갈기 찢기우고 머리와 수염은 더부룩하게 헝클어진 채” 손발이 묶여 호송 말에 끌려 Macondo로 돌아온다. 그의 자유주의 팬터지는 현실을 혼돈으로 몰고 갈 뿐 어느 하나 상황을 개선 시킨 것은 없다. 그는 감옥으로 면회 온 어머니와 세상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

거리를 지날 때 마을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우성치는 동안에도 그는 짧은 시간을 두고 마을이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자신 역시 많은 고통을 거쳐 왔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거리의 아몬드나무 가지는 부러지고 잎은 바래 있었다. 애초에 푸른색으로 칠해진 집들은 그 위에 다시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져 무슨 색깔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122).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길은 고독에 빠진다. 도대체 사람들을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게 할 수 없다면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는 무슨 소용이며 붉은색 페인트와 푸른색 페인트는 무슨 소용인가? 서로 덧칠된 두 색이 섞여

분간하기 어렵게 되고 자연은 피폐해졌지만 자유의 곶은 그저 캄캄하기만 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그는 되뇌었다.” “나는 너무 정신없이 앞으로만 내달렸어”(127). 조카인 사생아 Arcadio (II)가 사선에서 그를 구해 주었을 때 그는 보수주의에 대한 이론적/물리적 무장도 없이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또 다시 실패한다. Arcadio (II)는 “자유와 만세”를 외치며 총살형에 처해지고, 자신은 정부군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살을 기도한다. 자유주의 팬터지가 끝나는 순간이자 바나나 사업권을 앞세운 신식민주의의 입성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Macondo 마을을 궁극적으로 “유리집 속의 유페”으로 몰고가는 것은 성(性)의 몰락이다.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팬터지 유페된 채 심각한 고독으로 빠져들고, 성의 탐닉에서 구원을 회구한다. Hose Arcadia Buendia에서 Aureliano Buendia, Hose Arcadio, Arcadio(II), Au Segundo를 거쳐 Aureliano (III)에 이르기까지, 이 소설의 남성 주인공들은 부분 심한 고독감에서 잃어버린 세계와의 영교를 애타게 바라며 뒤틀린 사랑으로 “고독”을 이기려 한다 (Hall 256). Hose Arcadia Buendia와 Ursula의 근혼과 사랑의 줄행랑으로 시작된 Buendia 가계에서 Ursula는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 “돼지꼬리 달린 괴물을 낳는다”는 신화를 만들어 성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이 가계의 식솔들 가운데 오직 아마란타만이 이 신화를 믿으며 손을화로 불에 지지고 성의 순결을 지키고자 할 뿐 다른 누구도 그 신화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Buendia 가계의 남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지독한 고독에의 좌절을 이기기 위해 온갖 종류의 관습에 어긋나는 성(sex)을 탐닉한다. 그들에게 성(sex)은 “근원”과의 영교에 대한 대안이자 타자와의 영교의 수단이다. 고독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혼음에의 의존은 꿈의 좌절의 증표로서 그들의 파멸의 증표가 된다.

난교(亂交)의 탐닉은 Buendia 가계 사람들의 팬터지이자 운명이다. 근친음(incest)으로 씨족 형성의 바탕을 이루었고, 근친음(incest)과 혼음(混淫)과(雜淫)으로 미로 속의 고독을 견디고자 했으며, 그것으로 파멸을 맞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으로 고립무원의 세계에서 잠시 지극한 황홀감을 맛볼 수 있